

# 학계와 출판계 긴장시킨 지적 논쟁의 진원지

《출판저널》을 수놓은 빛나는 논쟁들...

서평을 둘러싼 논쟁과 출판현안에 대한 논전이 주를 이뤄

창간 이후 13년간 《출판저널》은 책과 출판을 둘러싼 논쟁의 수원지 역할을 해왔다.

《출판저널》의 '전매특허'는 논쟁서평. '정운영 - 복거일 논쟁' '장상환 - 공병호 논쟁'에서

볼 수 있듯 한권의 책을 중심으로 펼쳐는 논쟁은 우리 지식사회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출판계 현안에 대한 관심도 소홀하지 않았다. 재고도서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쟁을 촉발, 우리 출판계에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면 지식사회는 논쟁을 통해 성장한다. 그런 점에서 《출판저널》은 우리 지식사회에 자양분을 공급해왔다고 할 수 있다. 창간 이후 꾸준히 쟁점을 만들고 논쟁을 촉발시켜 왔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의 주목할 만한 지적 논쟁의 수원지로서 《출판저널》은 학계와 언론계의 주목을 받았다.

## 서평과 출판현안에 대한 논란으로 대별돼

《출판저널》을 수놓은 빛나는 논쟁의 성격은 크게 둘로 나뉜다. 서평에 대한 논란과 출판업계의 현안을 둘러싼 논전이 그것이다. 서평에 관한 논란은 논쟁적인 서평에서 출발한다. '홍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야' 한다지만 《출판저널》의 서평 청탁에서는 홍정은 말리고 싸움은 붙인다. 논쟁적인 서평에 대한 응답은 주로 지은이가 한다. 책을 매개로 한 논쟁은 '중이 제 머리 못 꺾는다'는 속설에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정운영-복거일 논쟁'은 90년대 초반 지식사회를 뜨겁게 달군 보기 드문 논쟁이다. 자유주의 논쟁으로도 불리는 논전의 포문은 정운영씨가 열었다. <'한 자유주의자의 시각'을 검증한다>(제68호, 1990년 9월 5일)는 복거일씨의 《현실과 지향》(문학과지성사)에 대한 공격적인 서평. 정씨는 "한 동네에서 살고 한 학교에서 공부했던 우리가 20년만에야 비로소 이렇게 어색한 방식으로 다시 만"나라며 점잖은 인사치레를 한다.

하지만, 이내 지은이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한다. "웬놈의 논리전개가 그토록 뻔뻔질질하고 유사시에(?) 도망하기 위해 파놓은 '방공호'는 어찌 그리 많은지!" 이어 부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토로한다. "이 책의 부제로 붙어 있는 '한 자유주의자의 시각'이란 설명이 적지않게 나의 심사를 긁고 있다는 점부터 알려야겠소."

정운영씨는 복거일씨가 내세우는 자유주의가 공소한 논리 위에 있다고 비판한다. 사람은 누구나 숨을 쉬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을 '호흡주의자'나 '호흡우선주의자'로 자처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힐난한다. 이쯤에서 발끈하지 않을 지은이는 없다. 게다가 보름을 기다릴 인내심 있는 지은이도 드물다. 복거일씨는 《한겨레신문》에 반론을 게재했다. 하지만 《출판저널》독자를 위해서도 답변을 내놨다.

"저자가 자신의 글에 대한 비평들에 일일이 답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이곳에서는 뜻밖에 주어진 귀한 지면을 평가가 내 글에서 잘못 인용하거나 제대로 인용하지 못한 부분들을 독자들에게 되도록 자세하게 소개하는 데 바치기로 한다. 글이 저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앞을 닦기를 바라면서."

복거일씨는 <글쓰기의 진정성과 텍스트 바로읽기>(제70호, 1990년 10월 5일)라는 제목의 반론을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를 배웅하는 부모의 심정이 담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한다. "과연 내 글이 혼자서 제 앞을 닦을 수 있을까?"

## 90년대 후반을 화려하게 장식한 논쟁

이에 비하면, 90년대 후반을 장식한 '장상환-공병호 논쟁'은 좀 살벌한 편이다. 두 사람은 《출판저널》이라는 링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서평과 반론, 재반론과 재재반론이 이어졌다. 세계관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논쟁의 상대자가 됐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논쟁은 '자유와 평등'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이 논쟁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신문기자들이 교정지를 받아가 잡지가 나오기 전에 기사를 쓰기도 했다.

장상환씨는 공병호씨의 《시장경제와 그 적들》(한국경제연구원)

에 대한 서평(제210호, 1997년 3월 20일)에서 공씨의 책이 “제목부터 도발적이고 그 주장도 파격적”이라고 운을 댄다. 그리고 지은이의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 회의를 표시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의 실패를 언급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맹목적인 시장 숭배가 현실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까닭에서다. 장상환씨는 소로스의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 형식으로 서평의 결론을 내렸다. “자유시장제는 민주사회와 열린 사회가 지향하는 바로 그 가치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병호씨는 즉각 반론을 기고했다. <“시장경제는 속죄양이 아니다”>(제211호, 1997년 4월 5일)를 통해 “다른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임을 전제하면서도 장상환씨 서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시장경제가 환경파괴를 야기했나 여부를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환경은 일종의 사치재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 지불할 여유를 갖게 된다. 대표적으로 주요 도시별 대기오염실태나 수계별 수질오염실태를 보자. 환경오염이 생활형편과 함께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람들은 흔히 배고프던 과거가 아름다웠다고 착각하곤 한다. 그러나 연탄을 사용하던 시절이 더 나은 시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공병호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반론 <“시장경제 강화는 재벌체제 변호론”>(제212호, 1997년 4월 20일)에 나타난 장상환씨의 견해는 전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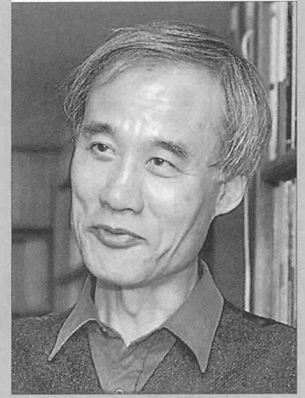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환경의 개선과 산업재해율의 저하도 시장경제의 자연적 산물이 아니라 정부의 아파트 난방용 중유 사용금지, 무연휘발유 사용의무화 등의 환경규제와 ‘산업안전법’의 제정과 강화 등 산업안전규제를 통한 정부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달성한 것이다.”

### 생산적인 논의의 장 마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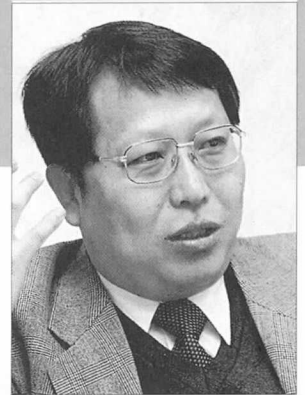
제153호(1994년 7월 20일)부터 한호 건너 뛰고 156호(1994년 9월 20일)까지 진행된 논쟁의 양상은 이채롭다. 《탈춤의 미학》(김육동, 현암사)을 둘러싼 논쟁에서 정작 지은이는 쏙 빠졌기 때문이다. 처음 서평을 쓴 임재해 교수(안동대)와 임교수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은 이훈상 교수(동아대)가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은이가 참여하지 않은 논쟁은 꼭 1년 전에도 있었다.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가라타니 고진, 김경원, 이산)의 서평(제262호, 1999년 7월 20일)이 그런 경우다. 정운영씨의 논쟁 파트너로는 가라타니 고진을 국내에 번역·소개한 박유하씨가 나섰다. 하지만 논쟁이 확산되지는 않았다. 서평을 둘러싼 다른 논쟁들도 지은이가 자기 변호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예가 많았다.

김유동 교수(경상대)의 《아도르노 사상》(문예출판사, 서평자는



《출판저널》 지면을 통해 생산적 논쟁을 이끌었던 공병호·정운영·한기호씨(위로부터 시계방향).



덕성여대 민형원 교수)이 그랬고, 이정전 교수(서울대)의 《녹색정책》(한길사, 서평자는 중앙대 이상돈 교수)도 그랬다. 최근에는 조기숙 교수(이화여대)의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나남출판)가 그렇다. 조기숙 교수의 반론이 신복룡 교수(건국대)의 서평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선에 그쳐 더 이상의 논쟁으로 비화하지 않았다.

정운영씨가 서평논쟁을 주도했다면, 출판현안을 놓고 다룬 논쟁의 한가운데는 한기호씨가 있다. 재고도서 할인판매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지사 김성재 대표가 했다(제220호, 1997년 9월 5일). 김대표는 재고도서의 개념부터 바로 잡자고 제안한 다음, 재고도서 할인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한기호씨는 다음호 지면을 통해 재고도서 유통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재고도서 논쟁’은 출판계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됐다. 김성재 대표의 재반론이 게재된 다음호에는 재고도서 처리방안에 대한 출판계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 논쟁은 생산적인 논쟁의 하나로 출판인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한기호씨는 《출판저널》에 ‘마케팅 캠프’를 연재 중이다. 제249호(1999년 1월 5일)부터 시작된 ‘마케팅 캠프’는 첫회분부터 독자의 반론이 날아들었다. 일신사 윤백규 대표는 한씨의 마케팅 위주의 시각이 “몰가치적인 극단적 상업주의를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최성일 기자